

돌아온 정형돈, 신현준과 한중합작 웹 영화 정식 작가 데뷔

1년의 공백을 딛고 활동을 재개한 방송인 정형돈(사진)이 활동 반경을 넓힌다. 영화제작사 에이치제이필름은 19일 "정형돈이 배우 신현준과 함께 한중합작 웹 영화의 정식 작가로 데뷔한다"고 밝혔다. 이번 웹 영화는 중국의 뉴파워필름과 공동 제작하는 코믹 판타지 장르로 100억원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 소통의 해방구 vs 사생활 침해...SNS의 두 얼굴

## 긴급점검

### 지드래곤·공유 사례로 본 스타 SNS에 얽힌 현상들

18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과 일본 모델 겸 연기자 고마즈 나나가 5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그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비공개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한 듯 게재 사진이 유출됐다는 점이다. 이날 밤 배우 공유의 소속사는 "공유를 사칭하거나 봇(로봇)의 준말로 특정인을 흉내낸 SNS 계정이 여러 발견됐다"면서 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두 SNS(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불거진 사안들이다. 일부 스타들이 SNS 게재글 등을 통해 논란을 빚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이미지의 실추를 우려하면서도 타인 혹은 대중과 소통하려는 스타들에게 SNS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면서 또 공적인 창구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지드래곤과 공유의 사례를 계기로 스포츠동아가 스타와 SNS에 얽힌 다양한 현상을 짚는다. (편집자 주)



GD 해킹에 이어 공유 사칭 계정 등장 팬들과 소통 과정에서 구설수도 잦아 각종 부작용에도 교감·홍보수단 필수

SNS는 타인과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소통 창구다. 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대중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중과 소통하고, 자기표현의 최전방의 공간이 되는 SNS는 스타들에게도 그만큼 꼭 필요한 수단이다.

가끔은 의도치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무대 밖 출신의 폭이 좁은 스타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의 공간이다. 비공개 SNS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드래곤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사진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계정은 물론 대중과 소통하는 공개 계정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도 스타들에게 SNS가 어떤 의미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소통? 해소의 공간?

과거 스타들의 SNS는 소속 기획사 측이 정형화한 '멘트'와 꾸민 사진을 올리며 '대신' 관리했다. 하지만 최근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스타들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SNS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처음부터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스타들이 있다. 지드래곤처럼 비공개와 공개 계정을 나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공개 계정은 팬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비공개 계정을 통해서도 소수의 절친 등 주변 지인들과 일상을 나누는 사적인 공간으로 삼는 스타도 있다.

다만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대중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스타들이 많다는 말이다. 소위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팬들이나 대중과 원활하게 대화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려는 스타들이다. 인터넷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전세계 팬들과 하나가 될 수도 있다.

SNS는 스타들에게 소통뿐만 아니라 자기표현, 자기과시 등 욕망과 스트레스 등을 표출하는 해소의 공간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지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거수일투족이 늘 대중의 시선을 모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선 스타들로서는 이 같은 공간이 더욱 절실하기 마련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을 빚는 사례도 눈에 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처럼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으로 구설에 오르거나, '팬들을 조롱한다'는 지적을 받은 연예자 하연수의 SNS 댓글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 ●과잉, 과도함의 폐해

세상 무엇이든 '차고 넘치면' 부족한다 못하다. 스타들의 과잉된 SNS 활동은 때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한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는 강한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때때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다. 침대에서 남자친구와 입맞추는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은 호기심 많은 스물두 살의 감성으로 여기기엔 '도발'로까지 받아들여졌고 그의 SNS는 자주 '덧말'을 물고 오기도 한다. 하연수처럼 지나친 솔직함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하연수는 당시 결국 SNS를 통해 자필의 사과 편지를 쓰기도 했다.

스타들에게 쏠리는 대중의 관심 역시 SNS에서는 익명의 폭력이 되기도 한다. 지드래곤의 사례처럼 아예 비공개 계정을 해킹해 사진을 유포하거나 연기자 공유를 사칭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긴다. 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내 취향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도를 넘는 악성 댓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스타들의 SNS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장점만큼이나 각종 논란 등 부작용이 잇따르다 해도 적극적인 표현 등으로 대중과 교감할 수 있고, 적절한 홍보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만큼 단단한 것도 없지 않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 SNS의 변천사

### 스마트폰의 확산 사라진 미니홈피

SNS의 오랜 역사만큼 그 흥망성쇠도 뚜렷했다. 연예인들이 활용하는 SNS도 그만큼 달라졌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활성화될 당시 SNS는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모두 PC에 기반한 형태였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연예인들이 활발히 사용한 SNS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스타들은 다이어리, 사진첩, 방명록, 배경음악 등을 손쉽게 꾸미며 각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 같은 PC기반의 SNS가 쇠퇴기를 맞은 것은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여갔다. 그 사이 뒤늦은 대처로 기존의 많은 PC기반 SNS는 도태됐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스타들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면서 나라 밖 팬들과 교류가 많아졌고 점차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모두 실시간 반응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SNS이기도 하다. 팬 혹은 대중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스타들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관련 SNS는 이미 보편화한 지 오래다. 또 다양한 정보의 흐름과 트렌드에 더욱 민감하기 마련인 연예인과 연예인들끼리 중사자들로서는 SNS를 통한 소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관련 콘텐츠를 더 많은 공간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창구로서도 SNS는 주요한 무대가 된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스마트폰 기반 SNS로 일상적인 생활에도 여러 변화가 생겨났다"며 "실시간으로 상호소통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정보의 흐름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 등 긍정적 효과도

### ■ 스타들의 SNS 활용 좋은 예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EPL) 감독은 "트위터(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보기 좋게 뒤집는 스타는 얼마든지 많다. 이들은 SNS를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효과를 일컫는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장점으로 살려 상상 이상의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걸그룹 레인보우의 지숙은 파워 블로거로 통한다. 요리, 캘리그래피, 네일 아트, 휴대폰 액세서리 등 그 제작 과정을 공개해 전문가 못지않은 손재주로 관심을 사고 있다. 가수로서 뿐 아니라 '자연인 지숙'의 매력을 스스로 알리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

최근의 SNS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스타들이 동참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송혜교, 이하늬, 보아, 효린(씨스타), 루나(에프엑스) 등은 SNS를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조인성(아래)과 이광수는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로 SNS 활용의 좋은 예로 회자되고 있다. 사진출처: 해당 영상 캡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정 문제에 많은 스타들이 한 목소리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올해 초

영화 '귀향' 흥행 당시 스타들은 SNS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노란색 리본 이미지를 게시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그해 여름에는 미국에서 루게릭병 환자들이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국내에까지 전파되며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실시간 사용자가 많은 SNS에서 관심을 도모해 대중의 참여를 이끄는 크라우드펀딩과 스토리펀딩 등도 있다. 김남길은 서울의 10개 옛길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SNS 활동을 통해 스토리펀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19일 "이들은 일반 대중처럼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만 연예인이라는 위치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언행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 이 같은 활동상은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연예뉴스 스테이션

### 연기자 김시은-KIA 투수 윤석민 내년 결혼식



김시은



윤석민

연기자 김시은(27)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투수 윤석민(30)이 내년 결혼한다. 윤석민은 19일 오후 대전 한화전에 앞서

"7월 올스타 브레이크 때 김시은과 약혼식을 올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그는 팀이 5강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알려진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이 부담스러운 듯 "팀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얼굴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김시은은 중견 연기자 김예령의 딸로, 영화 '여고괴담 5'에 출연한 바 있다.

### 무한도전, 우주여행 프로젝트 위해 러시아행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우주로 떠난다. 19일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무한도전' 멤버들은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위해 10월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4월 관련 소식이 알려졌지만 현지 사정으로 불발돼 아쉬움을 산 바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5대 기획 중 하나로 발표한 '우주여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왔다.

### 김정은, 애니메이션 통해 목소리 재능기부

연기자 김정은(사진)이 목소리 재능기부에 나섰다. 19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1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배리어프리버전 화면 해설에 참여했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자막과 화면 해설이 동시에 포함된 시청각 장애우도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다. 2016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김정은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는 박신혜와 송창의가 맡았다.



### MBC 라디오, 26일부터 프로그램 개편

MBC 라디오가 가을을 맞아 26일부터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FM4U '2시의 데이트'는 박경림이 지식인에게 진행자 바통을 건넨다.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FM 데이트'는 '마스터-국수의 신'과 '육룡이 나르샤' 등에 출연한 연기자 정유미가 가수 박지윤의 뒤를 잇는다. 에픽하이의 미쓰리는 신설 프로그램 '아간개장'을 통해 새벽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취자와 만난다. MBC는 19일 "각 프로그램의 색깔을 확실하게 강화하며 편안한 청취의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런닝맨 4월 방송분 '개운지' 자막 방심위 심의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4월 방송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날 방송분 자막, 출연자인 개리과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이은재의 이름을 합친 '개운재'라는 자막이 다음 장면에서는 '개운지'로 표현돼 논란이 일었다. '운지'는 극우성향 커뮤니티 일간스포츠장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리를 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런닝맨'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회차의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개운지' 자막은 삭제된 상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9월 19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3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4	뮤오리진	Webzen Inc.
5	몬스터 슈퍼리그	4:33
6	프렌즈팝 사친성 for Kakao	Kakao Corp.
7	프렌즈팝 for Kakao	Kakao Corp.
8	검과 마법 for Kakao	Longtu Korea Inc.
9	별이 되어라! for Kakao	GAMEVIL
10	스톤에이지	Netmarble Games